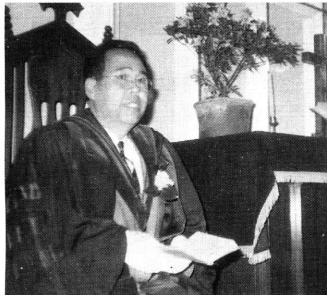


# “고인은 참으로 좋은 스승이었습니다”

## 조사(弔辭)



▲ 고 신사훈 교수 근영

88년의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소천하신 존경하는 신사훈박사님과의 고통을 나누는 이 시간 우리는 슬픔의 애가가 아니라 가장 어려운 싸움을 가장 큰 승리로 끝내신 영웅에게 드릴 수 있는 승리의 노래, 개신가를 부르면서 작별을 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좋은 스승 신사훈 박사를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만난 신사훈 박사님을 잠깐 회고하면서 조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신사훈 박사는 우리 모두가 아는 대로 믿음의 어른이었습니다. 고창고보를 다니시던 소년시절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그날 마을 뒷산에 올라 '내주의 도침 받은 날 참 기쁜 날이 아닌가'하는 찬송을 밤새껏 부르셨다는 그 밤 이래로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시던 그에게 그날까

지 큰 풍랑에도 불같은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의 믿음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그가 일본의 청산학원을 졸업하고 미국의 두루대학으로 유학을 떠나시기 직전 청산학원에서 신학을 가르치던 베리라는 미국인 교수가 환송만찬모임의 환송사에서 "너는 미국에가면 놀랄 것이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엠파이어 스테이트빌딩을 보고 놀랄 것이다. 미국의 문화를 보고 놀랄 것이다"라는 말씀에 답하여 "나는 미국에 가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엠파이어 빌딩을 보아도 미국의 높은 문화를 보아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만났고 인격적으로 고매한 당신을 만났기 때문이다." 라고 답사를 했다고 합니다. 고인은 어떤 위대한 인간의 문화 앞에서, 하나님처럼 크게 보이는 거대한 우상앞에서도 나라를 움직이는 큰 권력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

다. 우리가 만났던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했고 진리 앞에서만 웃음을 여미면서 사셨습니다. 고인은 참으로 좋은 스승이었습니다. 학문적으로 막힘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사도들에 대하여 초대교부들에 대하여 중세 여러 사상들에 대하여 종교개혁자들에 대하여 현대신학에 대하여 막힘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버코프와 벤틸, 칼 바르트와 풀틸러, 칼 하인과 아돌프 슬라터, 블트만과 고가르텐 그리고 본헤퍼를 만났습니다. 그는 영어와 독일어는 물론이고 히브리어와 희랍어 그리고 라틴어를 막힘 없이 읽었고 강의를 하였습니다. 그는 참 보배였습니다. 그의 강의를 서울대학교의 3대 명강의 하나로 꼽았던 것을 우리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1967년 12월 초 올썸스럼기만했던 서울대학교 문리대 본관1층의 한 작은 강의실에서 우리를 위해서 졸업예배 설교를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읽고 예수가 받으신 시험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석을 해나가시면서 사단이 예수님에게 절하라는 대목에서 "이 말씀을 원어로 자세히 보면 한번만 절하라는 뜻이 숨어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한번 절하게 되면 영원히 마귀의 종이 되고 만다"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라고 뜨겁게 당부하시던 일을 기억합니다. "에라스무스는 소금이 소금 되지 못하게 하는 것 새가지를 지적했는데 명예육 물욕 색욕이 그것이다. 이를 늘 유의하라." "오늘을 직장난의 시대라고 하지만 오늘은 인제난의 시대이니 참 인재들이 되라" "대체할 수 없는 인물들이 되라"..... 우리의 귀에 못처럼 박혀서 지워지지 않고 우리를 늘 일깨워주고 앞으로 나아가게한 말씀들이 되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성공적인 스승이었습니다. 수 많은 학자들 목회자들 충성스럽게 살기를 힘쓰는 예수의 제자들이 그의 강의실에서 배출되었읍니다.

고인은 투사였습니다.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였습니다. 대세(大勢)의 편에 서지 않고 사람의 눈에는 전망(展望)이 없는 그런 싸움을 싸우시곤 했습니다. 창과 단창 그리고 방패와 투구로 무장하고 나오는 대적자들 앞에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가지고 물뿜듯 뿜어 손에 든 채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승리를 거두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고인은 짧지 않은 88년의 삶을 사셨는데 이 땅에서 나그네로 행인이요 외국인으로 살았습니다. 당신의 고향이 어디냐고

묻는 물음에 하늘나라라고 늘 대답하셨습니다. 그는 이땅에 살면서 이땅의 풍습을 따르지 아니하였고 이땅의 노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하늘의 풍습을 따라 살았고 하늘의 노래를 부르면서 즐거워하셨습니다. 이땅에서 귀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시면서 자유롭게 사셨습니다. 하나님께만 붙잡히고 세상으로부터 자유하는 삶을 누렸습니

다. 오늘 이 시간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승리의 관을 쓰고 손에는 종려나무의 가지를 쥔 채 어린양 예수의 노래를 부르시면서 하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의 모습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물론 고인에게도 부족함이 있었고 약한 점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고인이 그의 종임을 늘 자랑스럽게 여기셨던 어린양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품에 안긴 것을 믿습니

다. 존경하는 신사훈 교수님, 안녕히 가십시오. 우리도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남기신 싸움들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마치는 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당신이 건너가신 이 요단강을 건너서 생명시대 흐르는 그 곳에서 주와 함께 당신을 기쁨으로 만날 날을 고대하면서 충성스럽게 일하렵니다.

고인이 평소애 늘 애송하였던 성경구절을 소개함으로 조사를 마치려 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라디아 1장 10절

유은상(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장)

월간 제 22 호  
1998년 11월 30일  
서울대 기독교교회 소식지

# 진리는 나의 빛

## ■ 이달의 성구 ■

너희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며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장

발행인 · 유은상 편집인 · 이두희 / 발행처 · 관악구 신림9동 241-85 대학촌 출판사내 / 전화 · 888-9111 FAX · 888-9112

# '98년 제2학기 서울대 종강예배



## 녹두거리에서 찬양 전도모임 시작된다

서울대 교수와 학생들이 중심이 된 찬양 전도모임이 11.29(일) 오후 5시에 녹두거리 상업은행 앞에서 처음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이 모임은 앞으로 매달 마지막 주일 오후 5시에 정기적으로 열릴 것이며, 복음화에 열정을 가진 사람들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다.

## 대학촌교회 창립24주년 기념예배 드려

지난 11월24일(일) 오후 3시30분 대학촌교회에서는 서울대 기독교인들이 함께한 가운데 24주년 창립기념예배가 있었다. 대학촌교회는 서울대 복음화를 위해 기독교동문들에 의해 설립된 교회로 서울대

캠퍼스 복음화와 고시촌 전도를 통해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한결같이 헌신해 온 교회이다. 이날 박영범 목사의 취임식도 함께 행해졌다.

서울대 기독교 연합 종강예배가 박영범 목사(대학촌교회)를 강사로 모신 가운데, 11.30(일) 오후 5시30분 문화관 대강당에서 드러진다.

특히 이번 종강예배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모든 서울대 학생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가운데 열린 종강예배, 전도집회로 기획되었다.

## 신사훈교수 소천

1947년부터 1976년까지 30년동안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로 봉직하는 동안 기독교생운동의 지도교수로 헌신적으로 섬기셨던 신사훈 박사가 지난 9월 22일 소천하였다. 신박사는 1911년 전북 고창에서 출생하여 일본청산학원 신학부를 졸업하고 미국 두루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귀국후 잠시 감신대에서 교수로 봉직후 서울대학교 교수로 옮겨 그의 전 학문적인 삶을 여기에서 보냈다. 수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그리고 평신도로서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이들이 그의 강의실에서 배출 되었다. 그의 제자로는 한철하(전아세아신대학교 총장), 김철손교수(전감신대 대학원장), 이한빈박사(전 경제기획원장관),

이진택박사(개혁신학대학교총장), 박조준목사(갈보리교회), 나학진박사(전서울대학교수), 장국원박사(한세대학교수), 김상복목사(셋볼트리나티신학대학원대학총장), 이형기박사(장신대학교수), 정진홍교수(서울대학교수), 손봉호박사(서울대학교수), 김득중박사(감신대학교수), 이수영박사(장신대학교수), 김중은박사(장신대학교수), 남상국목사(벡쿠버교당목회), 김영문박사(영남대), 서휘덕(미국 LA 공인회계사) 신현웅차관(문화관광부차관), 박영남목사(미국LA), 천양철국장(연합통신편집부국장), 이상직박사(호서대학교), 임성준 대사(이집트 대사) 김영한 박사(숭실대학교), 오성종 박사(대신대학교 총장), 김철손교수(전감신대 대학원장), 이한빈박사(전 경제기획원장관),

## 종강예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불가능한 가능

##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막 10:27)

- 일시: 1998년 11월 30일(일), 오후 5시 30분
- 장소: 문화관 대강당
- 강사: 박영범 목사(대학촌교회)
- 주최: 서울대 기독교인 연합, 서울대 기독교 교수회, 서울대 교직원 신우회

## 교수칼럼

### 새해를 바라보며

“예후가 이와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로 범죄계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엘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열왕기하 10:28-29)

하나님께서서는 요즈음 열왕기서를 통하여 나의 속마음을 비추시며 말씀하시고 있다. 예후는 북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광범위한 개혁을 한 왕으로 기억되고 있다. 예후는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을 때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나뭇대로 정치개혁과 종교개혁을 행하였다. 즉 그는 엘리아의 예언대로 아합의 집을 멸망시키고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값어주었고 바알 숭배자들을 멸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예후가 행한 개혁을 기뻐하시며 그의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나게 될 것이라고 하셨다. 그러나 열왕기의 저자는 우리에게 예후의 개혁이 자신의 회개와 철저한 순종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불행하게도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난 왕은 한 명도 없었다.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사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자신에게서 돌아서게 될 것을 염려했었다. 그리하여 자기 마음대로 베엘

과 단에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금송아지를 세워 숭배하게 하고 자객없는 보통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아 산당에서 제사드리게 하였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예배가 아니라 거짓되이 자기를 만족시키는 형식적 예배와 다름없는 것이 아닌가.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므로 삶의 변화는 없었고 오히려 더욱 악해져갈 뿐이었다. 이것은 예후의 개혁이 결국 여로보암을 묶어 파멸로 이끌었던 정치적 야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자기의 욕심은 가리우고 피상적

황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내가 속한 교회와 공동체를 넘어 서울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을 함께 바라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올 여름에는 국내의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비하여 더 많은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국내, 국외 단기선교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교내로 눈을 돌려보면 우리 안에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보게 된다. 외부로 향하였던 복음의 열정이 우리 안에서 많이 식어진 모습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아직 서

울대에서 복음 선포의 능력이 약함을 보게 된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의 온전하지 못한 회개, 개혁은 결국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로 이어지게 되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주변 열강의 압박아래 고통을 당하게 된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피상적인 회개에 머물러 있을 때 이 땅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고통가운데 있게 됨을 보게 된다. 우리 민족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으니, 민족의 죄를 끌어안는 것은 두고두고 자신의 신앙생활이 대학생활을 하는 동안 방

황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내가 속한 교회와 공동체를 넘어 서울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을 함께 바라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올 여름에는 국내의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비하여 더 많은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국내, 국외 단기선교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교내로 눈을 돌려보면 우리 안에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보게 된다. 외부로 향하였던 복음의 열정이 우리 안에서 많이 식어진 모습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아직 서

울대에서 복음 선포의 능력이 약함을 보게 된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의 온전하지 못한 회개, 개혁은 결국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로 이어지게 되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주변 열강의 압박아래 고통을 당하게 된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피상적인 회개에 머물러 있을 때 이 땅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고통가운데 있게 됨을 보게 된다. 우리 민족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으니, 민족의 죄를 끌어안는 것은 두고두고 자신의 신앙생활이 대학생활을 하는 동안 방

지 못하게 됨을 본다. 영적 지도자는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각적으로 철저히 순종하는 자만이 될 수 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독교인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의 역사에 들어가기를 소망한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민족 안에 뿌리박혀 있는 죄악들이 나의 것임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여주시기를 기도한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넘어야 할 가장 험난한 산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민족과 열방을 맡기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때 준비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당신의 심정으로 이 땅의 황무함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를 세워주소시요. 구체적으로는 내가 속한 과모임을 통하여 연약한 지체들을 세우고 복음 증거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기를 기도한다. 그리하여 서울대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바란다. 또한 준비된 형제들이 올해보다 더 많이 이 땅의 대학으로 아시아의 여러 대학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그리하여 새로 맞이할 이천년 대에는 서울대 기독교인들이 고통받는 민족과 열방의 현장으로 나아가 치유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기를 소망한다.

홍종인(화학과 교수)

선교단체 소식

# 기독교 동아리들 전도집회 가지다

매서운 겨울 날씨가 몸을 움츠러들게 하는 11월, 몇몇 기독교인 모임들은 이러한 추위까지도 녹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을 불신자들에게 소개하는 행사들을 가졌다.

CCC는 11월 12일 오후6시 학생회관 라운지에서 '타는 목마름으로 98' 이란 제목을 가지고 태신자 초청 전도집회를 가졌다. CCC지체들이 풍선 등으로 예쁘게 꾸민 라운지에서 진행된 이번 전도집회는 라운지가 딱 찰만큼의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되었는데, 이 중 약 40명 정도가 불신자였다. 이 전도집회는, 불신자들의 거부감이나 생소함을 줄이기 위한 배려로 준비된 여러 프로그램들이 인상적이었다. 특히 CCC로서도 처음 시도하는 프로그램인 '에메이'라는 가스펠 락밴드 공연은 불신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그 공연에 이어 서울음대 기독교인의 공연이 이어졌고, '사랑은 나누어 주면 커진다'는 메시지의 스킷이 그 다음으로 공연되었는데, 이 스킷 또한 불신자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이 공연을 이후, CCC출신 목사인 박성민 박사의 복음 소개가 있었고, 이후 2부 순서로 다과를 같이들이면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 전도집회때, 10명의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했는데, 이후 CCC지체들이 그들과 접촉을 시도하

고 있다. 여러 CCC지체들의 헌신과 수고로 이루어진 이번 전도집회는 많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기독교화 또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IVF는 11월20일에서 21일까지 1박2일간 이천 플라워랜드에서 'TVF 가을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학기들이 두 번째 전도 캠프를 가졌다. 이번 전도 캠프에는 40명의 불신자들이 초청되었는데, 그중 4명이 서울대생이었다. 플라워랜드에 도착한 20일 밤에는,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드라마와 작은 연극이 공연되었고 복음 소개가 이어 졌다. 이후 뒷마당에서 캠프이어가 진행되었다. 한두명의 불신자들은 크리스찬 두명과 함께 한 소그룹에 배치되었는데, 이 소그룹에서 새벽이 맞도록 각자의 삶들을 나누고 교회, 성경, 믿음 등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에 대해 묻고 답하고 각자의 생각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21일 오전에는 간증을 듣는 시간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이미순 간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말씀이 있었다. 이번 전도 캠프는, 여러 불신자들에게 자신들의 삶을 진지하게 다시 돌아보게 하고 기독교에 대한 여러 편견들을 다시 생각하게끔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소개하는 귀한 시간들이었다. (정지은 기자, 서양사 '97)

# 한학기를 돌아보며

## 예수전도단(YWAM)

이번 학기에 YWAM에서는 전도와 양육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도 쪽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서 활동해왔습니다. 한 학기를 되짚어보는 지금 머리 속에 크고 작은 사건들이 하나씩 지나가고 있지만 전도 부분에 관련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나는 것은 '양육과 함께하는 전도'입니다. YWAM에서는 1:1로 선후배간에 성경공부를 하는 양육 체계가 있는데 기존에는 성경공부만을 중점적으로 하였으나 이번 학기부터 성경공부 후에 양·목자가 2인 1조가 되어 노방전도를 하였습니다. 전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하였고 그 시도 중의 하나가 전도 설문지를 이용한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나는 것은 비록 활동적이고 체계적으로 일이 진행된 것은 아니었지만 매주 수요일마다 학생식당 앞에서 가졌던 찬양전도입니다. 5시 20분부터 약 20-30분간 찬양을 하며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식으로 주님이 임재하시는 영향력을 홀려보내고자 하였습니다. 이 시간은 특별한 형식이 없어서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 열려있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말씀 선포를 중심으로 하였으나 개인 전도와 기타 창의적인 다른 방법들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한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예수대행진과 전도 집회에 관한 것입니다. 각 캠퍼스를 돌며 중보기도하고 메시지를 선포하는 예수대행진 자체도 전도와 복음에 관한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전도집회입니다. 캠퍼스 곳곳의 땅을 밟고 돌아온 후 본부에서 조그맣게 가진 집회였고 이 집회가 끝난 후 불신자가 많이 들지 못한 것에 대해 이런저런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는 이 집회가 전도에 대해 소망하고 꿈꾸어 온 것에 대한 결과의 한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집회가 많은 사람이 영접하게 되는 일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그 자리에 참석했던 기독교인들에게 전도집회의 필요성에 대해 호소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글을 마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이 일들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계속적으로 마음에 품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YWAM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드러나며 예수전도단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하기보다는 서울대에 있는 기독교인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대행진이나 전

도집회에서만 하더라도 충분히 'YWAM 예수대행진'이나 'YWAM 전도 집회'라는 이름을 내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길 원치 않았습니다. 이러한 정신은 앞으로로도 계속적으로 지켜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YWAM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 각자의 이름과 특성만을 내세우면 서기언이라는 이름이 무색해 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예 '97, 이봉진)

## IVF

"여호와여 주는 나의 여호와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리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시 63:1-3)

이번 학기를 돌아볼 때, 유다 광야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메마른 땅에서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전도'와 '방향적 삶'이라는 두 가지 중점 사항을 잡고 학기를 출발했으나, 아이들의 변화는 없는 것 같고, 전도의 열매도 확연히 눈에 보이지 않으며, 섬기는 이들 자신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거나 인격이 온전해지는 것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엘리아의 여파와는 어디 계시나이까"라고 외쳤던 엘리사와 같이, 우리는 무력감을 절감하고 또 많은 바 일의 막 중함을 의식하며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돌아켜보면, 자신의 무능력에 드러날수록, 공동체의 규모나 조직을 의뢰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질수록, 복음의 탁월함과 영광은 우리에게 더욱 뚜렷이 다가왔습니다. 인생의 완악함에 물러서지 않으신 하나님, 그 자신의 영광을 다는 것과 나누지 않으시고 홀로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시며 당신께로 향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우리 공동체에 가장 큰 유익이었던 것 같습니다. 복음의 가치와 영광을 깊이 안 것,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갔던 사람들의 삶을 보게된 것, 다른 어느 곳에서도 만날 수 없는 중심에 주님을 향한 갈망함과 주의 나라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지체들과 동역하게 된 것, 공동체를 통해 소망했던 인생이 자신의 주를 알고 변화된 삶으로 놀라게 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께서 광야기운에 있던 우리에게 주신 복락들입니다. (의예 '96, 임경수)

## 초대의 글

# 보고싶습니다...

나의 친구들을 생각해 봅니다. 내가 생활하는 우리과의 친구들과, 때로는 그들의 거부와 비웃음이 두려워 복음을 전하다가 실망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변하지 않을거라고 복음의 능력을 제한해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을, 그리고 인간의 내면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없음, 그리고 자신이 혹은 어떤 목표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되어 그것을 좇아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그것이 아니라면 걸 앞에서도 다른 길을 알지 못하기에 그저

어떤 것을 좇아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죄의식을 느끼면서도 그리고 내면의 영혼은 그것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하지만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고, 방법을 몰라 그것에 묶여 점점 더 죽음의 길로 가까이 가는 그들의 모습을.

세상에서의 상처와 눈물과 고통을 걸치려와 농담과 거짓된 웃음 속에 감추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인정받기 위해, 사랑 받기 위해,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애쓰는 모습들을, 홀로 있을 때 찾아오는 외로움과 상실감과 허무를 이기지 못해 채우지 못할 것으로 내면을 채우고자 애쓰는 모습들을...

바로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생명의 부름이 우리를 낮게 하였고 지금도 낮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보고 싶습니다. 참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애절한 음성 "너는 나에게 오라. 내가 너의 죽음과 근심을 담당하였노라!" 그 음성이 그들의 닫히고 상처난 마음을 열게 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이제는 참된 사랑을 찾았노라고 고백하는 그들의 고백을 듣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죄악에 묶여 그것을 죽어도 버릴 수 없었던 자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 무거운 죄사슬과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수의 이름과 복음을 무시하던 자들이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빛나는 얼굴로 찬양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깨달으며 그분이 왕이시며 전부라고 고백하는 것을 듣고 싶습니다. 이제는 참된 사랑을 찾았다고 고백하는 그들의 속삭임을 듣고 싶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사랑을 주소서.

한 명의 영혼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한 어려운 일인지요, 특별히 준비한 공인들과 진리와 사랑으로 선포될 복음의 메시지가 열린 종강예배에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고 움직일 때가 되었습니다.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여 주이름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너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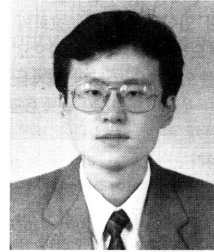
이인엽(독어교육 '95)

## 예의 소식

# 아시아의 복음화를 꿈꾸며

## 동경대의 그리스도인들

"만약 서울대와 동경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면, 국경을 초월한 우주적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확인하는 감격도 맛볼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이영득 (서울대 법대 '83)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1년 동안 동경대학에서 연구할 기회를 얻게 되어 어느덧 반년이 지났다. 겨우 반년 동안의 생활로 이곳 동경대의 전반적인 영적 상태나 그리스도인들의 활동을 소개한다는 것이 사실 좀 주저되는 바도 없지 않으나, 그 동안 개인적으로 알고 느낀 범위 안에서나마 동경대의 상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동경대라고 하여도 캠퍼스가 코마바에 있는 교양학부 캠퍼스 - 주로 1, 2학년생들이 다이고 있음- 와 3학년 이상 대학원생들이 속해 있는 홍고(本郷) 캠퍼스 둘로 나누어져 분위기가 모든 것이 전혀 다른 학교처럼 느껴지는데, 아무래도 필자가 속해 있는 홍고 캠퍼스를 중심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일본이 영적으로 매우 척박한 상태라는 사실은 동경대에도 역시 예외는 아니다. 적어도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만 판단한다면,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주도되는 어떤 뚜렷한 영적 흐름을 감지하기가 힘든 게 사실이다.

물론 기독교 모임이나 단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역사가 가장 오랜 것으로 YMCA, 그리고 그 다음으로 同志會를 들 수 있는데, 이들 단체는 모두 기숙사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다. 필자가 현재 기거하고 있는 YMCA 기숙사를 중심으로 설명한다면, 약 20명 정도가 같이 생활하면서 매일 아침마다 30분 정도 아침기도회로 모이고 일주일에 한번은 저녁 시간에 성경공부와 합동기도회, 기숙사 OB와의 대화, 전체회의 등의 모임을 갖고 있다. 기숙사 출신 선배들 중에는 각계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임을 훌륭히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로 본다면 전통을 지키고 있다는 데 만족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 외에 우찌무라 간조(内村監司)의 성경연구모임에 영향을 받은 성서연구회도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 오고 있다. 잘 알려졌던 시피 우찌무라의 제자 중에는 동경대의 총장도 배출되는 등 그 영향이 적지 않았다. 지금은 한 달에 한번 예닐곱 명 정도가 모이는데, 신앙은 확고한 반면 무교회주의의 전통을 고수하여 적극적인 선교나 연합에는 매우 소극적인 인상이다.

우리의 IVF에 해당하는 KGK는 매주 미국인 선교사의 인도로 5명 정도가 영어성경공부를 하고 있다. KGK는 유일하게 동아리방을 확보하고 있는 기독교단체인데, 다른 대학에서와는 다르게 영적으로 매우 약한 상태라고 듣고 있다. 한 명의 간사가 열 개 이상의 캠퍼스를 담당하고 있는 데다 아직까지 학생 리더를 세우는 데 실패했

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인 선교사에 의하여 시작된 또 다른 성경공부모임으로 로고스라는 모임이 있다. 이 모임은 일본선교를 위해 애쓰는 존경받는 한 그리스도인 변호사의 강력한 후원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신실한 일본인 교직원도 참여하여 모임을 돕고 있어 축제 때마다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비교적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주로 유학생이 중심이 되고 있고 그나마도 구도자나 초신자가 대부분이어서, 적지 않은 수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데 이르지만 제대로 양육해 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금년 초에는 코마바 캠퍼스에서 한 간사에 의해 CCC 모임이 개척되어 6-7명의 일본인 학생들이 양육되고 있어 기대되고 있고, 한 한국인 교회의 캠퍼스 모임으로 헤브라이문화연구회라는 명칭의 모임도 존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각 연구과 안에서 유학생에 의해 주도되는 소모임이 한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기할 만한 점은 금년 12월 9일에 동경대의 그리스도



▲ 옛 중국인들이 그린 세계지도

## 북경에서 온 편지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라는 말이 있다. 시련을 겪은 후에 이전보다 더 유대관계가 깊어진 경우를 말하는 것이

라던, 바로 중국에 있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IMF체제에 들어간 이후 중국에 있는 우리 사역자들과 유학생들도 한꺼번에 큰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수 많은 사역자들이 철수했다. 남아있는 사람들도 짐을 옮기고 학교를 옮기고 공동생활을 하는 등 대대적인 내뺄생활을 해야만 했다. 이 와중에서 우리 가정도 4개월 사이에 3번이나 이사를 했고, 소속부서도 북경대학으로 옮기게 되었다. 사역자가 줄어들어 한인교회의 중등부와 두 곳의 캠퍼스 모임을 맡게 되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숨을 돌리며 뒤돌아보니 그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려움을 겪으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 사역자와 학부도 교사 학생들 사이의 유대도 더욱 깊어졌다. 배울 사도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로마서5:3-4)"고 말

인들이 연합하여 크리스마스 디너파티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지만, 이것을 계기로 각 모임들이 동경대 선교를 위해 연합하고 힘을 얻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지면을 빌어 기도를 부탁한다.

일본에 있으면서 일본의 그리스도인들과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참 다르다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된다. 물론 일본에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으나, 적어도 필자가 알고 있는 몇몇 그리스도인들의 경우 그 진실함과 성실함에 깊은 감명을 받은 적이 많았다. 그저 일본적 특성일 뿐이라고 폄하하는 소리도 있으나, 일본 특유의 성실함이 신앙에도 그대로 나타난 것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있다. 반면 일본의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인 인간관계가 선교에 장애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기도 한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전화를 하면 부담을 느낄까봐 하지 못한다는 소리를 들은 적도 있다. 물론 이뿐만은 아닐 것이다. 필자가 참석한 한 성경공부모임에서는 당자의 비유를 공부하면서 앙게이트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내가 작은 아들이라면 차라리 죽어 버리겠다. 아버지의 태도를 이해하지 못하겠다. 내가 형의 입장이었다면 아버지와 동생 간의 일이니 간섭하지 않겠다는 식의 대답이 의외로 많이 놀랐던 적이 있다.

그렇다고 이러한 문화적 특성을 전혀 무시한 채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하면 장기적으로는 부작용만 더 커질 것이 우려되기도 한다.

결국 사랑의 인내와 성령의 능력만이 일본선교의 관건이 아닌가 생각된다.

어쨌든 일본의 그리스도인들과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배우고 보충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 만약 서울대와 동경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면, 서로를 배울 뿐만 아니라 선교의 시야를 넓히고 국경을 초월한 우주적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확인하는 감격도 맛볼 수 있으리라 믿는다.

썸해했다. 이 말씀처럼 이제 우리들도 한 소망을 가지고 나머지 고난들을 함께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북경시내 60여개 대학에 있는 7천여명의 한국 유학생 중 천명 이상이 교회에 출석하며, 이곳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고 있다. 이들이 속한 대학에 재학중인 중국 학생들도 20만을 훨씬 넘는다. 그러나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자유롭지 못하다. 의식이 치열한 학생들이 많은 명문대학일수록 이러한 압력은 더욱 심하다. 많은 학생들이 중국에 대한 소망을 잃고 외국으로 나가려 한다. 캠퍼스 곳곳에서 영어공부에 몰두하는 학생들을 볼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 졸업시에 토플 600점을 넘는 것은 아주 일반적이다. 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속히 오도록 기도하자. 이들이 주 안에서 참 진리와 소망을 깨닫고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하자. 남이하는 우리들도 이 일을 위해 더욱 헌신할 것이다.

이한길 선교사

# 신세대 선교를 말해 봅시다



박영범 목사

얼마 전 미국에서 이런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교회 학교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 8,000명에 대해 조사한 것인데, 그 통계에 의하면, 이 아이들 중 87%가 복음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18세가 되었을 때는, 이들 중 20%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비슷한 통계에서 7%만 신앙을 계속 갖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수되지 않고, 믿는 부모의 자녀들이 신앙을 버리고, 대개 교회를 떠나는 현상이 벌어져 온 것입니다. 신세대 청소년, 청년들의 전도가 벽에 부딪혔을 뿐만 아니라, 믿는 가정의 자녀들도 10대, 20대에 무수히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세속 풍조에 떠내려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서구 사회에서는 탈도덕화 현상이 견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습니다. 사회 도덕이 붕괴되고, 많은 청소년, 청년들이 삶의 기준을 찾지 못하고, 마약과 섹스와 범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한때 복음 전도와 신앙 부흥의 불길기 유희를 타오르던 나라들에서 일어났습니다. 유럽에서는 1세기 전에 이런 추세가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미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나타나, 계속 악화되어 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제2차 세계 대전 기간 중이었던 194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초까지는 청소년, 청년 선교가 대단히 활발했습니다. 이 기간 중 미국 교회 전반은 성장과 활력의 시대, 부흥과 선교적 헌신의 시대를 구가했었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가 되면서, 미국의 교회 학교 교육은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전후 신세대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을 미국 교회가 안이하게 대처했습니다. 급격한 사회 문화적 변화와 이에 따른 신세대의 문제에 교회가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청소년, 청년들 전도가 벽에 부딪치고, 믿는 가정의 10대 자녀들도 대개 복음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속 문화의 거센 물결 속에 휩쓸려 가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미국 교회는 쇠퇴와 침체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교회 쇠퇴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청소년과 청년들의 전도가 막히고, 교회에 나오던 아이들도 그 시기에 교회를 점점 떠나갑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10대, 20대들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되지 않습니다. 그 후 시간이 흐르면서 헌신된 교회학교 교사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는 어린아이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이런 교회학교 쇠퇴 현상이 한 세대만 계속되면, 교회 전반이 완전히 쇠퇴해 버리고 맙니다. 미국 교회는 이런 쇠퇴의 과정을 1960년대 초를 기점으로 하여 지금까지 (최근 들어 희망적인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겪고 있는 것입니다.

## “친구 초청의 밤”



▲ 호암 교수회관에서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지금 1990년대의 우리의 상황이 미국 교회의 1960년대 상황과 대단히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세대, 아이들은 고도 전문화 사회, 정보 사회, 극한 경쟁 사회에서 감각적인 영상 매체와 충동적인 문화의 홍수에 휩싸여, 무수한 비신앙적, 비도덕적 메시지들에 어릴 때부터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자라 가는데, 교회는 문제 의식도 없이, 대책도 없이, 구태의연한 자세로 안이하게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에 신세대 교육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전문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임 교역자들은 대개 장년을 위한 설교와 심방, 장년 교육과 행정적인 일들을 위해 바쁘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한편, 정말 어려운 신세대 교육은 이 일 저 일에 바쁜 평신도 교사들과 학교 공부에 쫓기는 파트타임 교역자들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부모들은 바쁘고 복잡한 시대에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할지 확신을 갖지 못하고, 능동적으로 교육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저 학교와 학원과 과외 선생과 교회에 자녀 교육을 맡겨놓고 있습니다. 제가 감히 예언하건대, 이런 교육 구조를 계속 유지시켜 나간다면, 10년, 20년쯤 후엔 한국 교회 전반이 심각한 쇠퇴 현상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급변하는 사회 문화 속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성장해 가는 신세대의 선교를 위해 심각한 각성을 해야 합니다. 이 신세대 선교와 교육 분야가 바로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벽에 부딪친 부분입니다. 민족 복음화의 길로 가는데 봉착한 주요 난관입니다. 앞으로 21세기에 예수 생명, 예수 복음, 하나님 말씀의 위대한 부흥, 온 민족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거룩한 역사를 더욱 강력하게, 줄기차게 이룰 수 있는나 없느냐의 관건이 되는 영역입니다. 이 과제를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한국교회의 미래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세대 선교의 난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당장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 신세대 선교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투자란 말이 좀 속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돈을 투자해야 합니다. 효과적이고 아낌없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많은 미국 교회들이 한참 성장하고 있을 때, 장년 목회를 위해서는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교회 건물 짓는 데도 큰 돈을 들였습니다. 해외 선교를 위해서도, 사회 봉사를 위해서도 많은 예산을 할애했습니다. 물론 그게 다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신세대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적절하고 과감한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세대 교육에 구태의연하고 안이한 방식으로 대처해 오다가 견잡을 수 없는 침체의 늪에 빠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은 교회들이 투자할 재력도 잃어버렸습니다. 투자해도 효과가 크게 떨어진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투자에도 적기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 투자의 효과가 줄어들고 없어집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한국 교회가 신세대 교육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지난 11월 23일 호암 교수 회관에서는 재료공학부 강신후 교수와 형제, 자매들 그리고 이들이 초청한 지체들이 함께 모여 식사도 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으로 4회를 맞는 친구초청의 밤 행사는 지난 10월 12일부터 시작되어 2주마다 월요일 저녁 6시에 호암 교수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강신후 교수는 ‘예수님은 역사적 인물이고 실존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시작하여 예수님의 인생과 그 의미를 개인적인 경험담과 함께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갖게 되는 만족감을 알게 되고 이것을 계기로 개인적인 삶의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행사는 해외 전도 여행, 국내 대학 전도와 함께 서울대 내에서도 효과적인 전도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기도하던 기독교인 교수들 - 남

할 때입니다. 다른 것 못해도 지금 신세대 교육에 과감한 투자를 하면, 나중에 다른 것들도 더 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눈에 보이는 것, 다른 이런 저런 것에 예산을 다 쓰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사람 키우는 일, 100년 앞을 내다보는 신세대 교육에는 인색하다 보면, 나중에 다른 일들도 못하게 됩니다. 교육에 투자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것은, 전문 사역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신세대 교육을 위한 사명감에 불타고, 충분히 훈련된 전임 교역자들을 세우고, 그들이 혼신의 힘을 쏟아 창의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입니다.

신세대 교육의 난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선, 둘째, 헌신된 교사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하나님 말씀을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구원받고 세례 받게 하고,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생명을 얻었습니까? 죄 씻을 받고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러면, 예수 제자로, 전도자로 훈련을 받으십시오. 전도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믿은 초신자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양육하고, 말씀을 가르쳐 그들도 예수 제자, 전도자 되게 하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충분히 훈련되고 헌신된 교사들에 의해 한국 교회의 미래는 달라질 것입니다.

신세대 교육의 난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선, 셋째, 부모들이 발벗고 나서야 합니다. 부모들이 자녀 교육, 기독교 교육의 전선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부모들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교사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그 역할을 포기했습니다. 일전에 신문에서 이런 책 광고를 본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도 부모다.” 너무 바쁘게 직장 생활, 사회 생활에 쫓기느라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역할인 부모 역할, 자녀에 대한 참된 교사의 역할을 저버린 아빠들이 너무 많습니니다. 어머니들도 자녀 교육에 대한 확신과 방향을 잃어버리고 막연히 선생님들에게 교육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 래선 안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부모의 교사적 역할을 되찾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부모들이 자기 자녀 연령의 교육부서에 교사로 참여하고, 어떻게 부모로서, 교사로서 교육할지 훈련받고, 가정에서 일상 생활 중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시키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이렇게 학생들, 교사들, 교역자와 함께 부모들도 참여하여 교육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함께 훈련 받고,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창의적으로 교육 공동체를 가꾸어나가는 것입니다.

신세대가 물질주의, 향락주의, 감각적이고, 충동적인 세속의 영에 휩쓸려간다면, 한국의 장래는 암담합니다. 신세대를 거룩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위대한 하나님 말씀이 그들 가슴가슴마다 임하게 해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윤리, 성결한 문화로 신세대를 정복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승호, 현택환, 박근수, 유규환, 홍종인, 강신후, 김병문 교수 - 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 모임은 좀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하겠다. 실제로 친구 초청의 밤은 시중 부드러운 분위기속에서 참석자들이 열린 마음으로 다가설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이 행사에 참여하는 교수들은 이 행사가 각 과나 선교 단체에서도 더욱 다발적으로 일어나 서울대 내의 복음 전파에 기여하였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었다. 다음 친구 초청의 밤은 12월 7일 김병문 교수의 말씀으로 열리고, 2주 후인 12월 21일 올해 마지막 친구 초청의 밤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이성삼 기자(지구환경시스템 '96)

#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 - 제6기 전도폭발훈련 전도대상지 부산대학교 답사를 다녀와서 -



목광수 (철학과 '94)

11월 18일, ‘입시 추위’ 탓인지 유난히도 쌀쌀한 새벽공기에 몸을 움추리며 부산행 기차에 몸을 실었다. 오랜만에 서울을 떠나 기차 여행을 할 때의 마음을 부풀게 했지만, 진정으로 우리를 흥분시켰던 것은 7월부터

기도했던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한다는 기대감이었다.

어딘지도 모르는 전도여행지를 두고 3월부터 기도도 준비했을 때, 지난 여름 하나님은 충북대라는 땅을 허락하셨다. 3일동안의 전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즉 주님나라의 확장이라는 비전을 보여주셨고, 그 은혜로 인해 ‘6기 서울대 전도폭발훈련’은 삶의 자리인 서울대에서 합작게 시작할 수 있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말씀을 듣고 60여명의 동역자가 함께 기도하고 훈련에 임했을 때, 하나님은

6기 가운데 많은 열매와 축복을 허락하셨다. 12월말에 임하는 전도여행은 이런 6기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7기를 준비한다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역이기에 우리는 7월부터 모일 때마다 전도여행을 위해 기도했던 것이다.



▲ 부산대학교 전경

“하나님! 캠퍼스에 대한 비전을 가진 기지교회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가야할 전도여행지를 보이시고 준비하십시오!”

전도여행지를 놓고 기도하던 지난달말 어떤 교수님을 통해 부산대 앞에 있는 부산장전제일교회를 소개받았다. 하지만 전도여행에 대한 상세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준비하신 교회인지를 알 수 없었다. 따라서 답사는 동역할 교회인지를 확인하고, 그런 교회라면 동역할 내용들을 상세히 나누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어쩌면 동역할 교회를 새롭게 찾아야 할 지도 모른다는 부담감이 있던 것도 사실이었다.

기차에 오르기 전까지는 이런 저런 부담감으로 마음이 무겁기만 했지만, 기차에 오르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가볍고 기쁘게 하셨다. 창가로 보이는 낯선 풍경들은 우리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고, 하얗게 눈이 덮인 총정도를 지날 때는 처음보는 눈으로 마냥 즐겁기만 했다. 열차에 앉은 아기의 맑은 눈망울과 미소를 보면서는 우리도 함박 웃을 수 있었다. 부산역에 내릴 때는 모든 부담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확인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가다.

‘부산대역’에서 내리서 부산대를 향하여 걷는 우리에게 두가지 놀라운 점이 있었다. 하나는 부산대 근처가 상당히 변화하며 화려하다는 것, 즉 향락과 소비 중심이라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 일대를 많이 돌아본 것은 아니지만) 2개의 교회밖에

볼 수 없었다라는 것이었다. 서울에서는 어디에서나 주위에 눈을 돌리면 대어섯개의 십자가는 볼 수 있다는 것에 비하면 정말 놀라운 충격이었다.

부산대에서 5분정도 떨어진 부산장전제일교회는 생각보다 크고 아름다운 교회였다. 전도여행기간 중에 진행될 사역 전체를 놓고 목사님께 협조를 부탁드리고 답사를 나누면서 우리는 우리가 기도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준비시켰음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교회 자체가 올해부터는 특히 이 지역을 사랑과 복음으로 섬기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그렇지만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도를 할지는 막연하여 답답하고 고민하던 중에 우리와 연결이 되어 동역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은 그 교회에 전도의 비전을 심으시고, 지역과 부산대 복음화에 그 교회를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성도님들이 300명의 태신자를 품고 40여일을 함께 기도도 준비하시겠다는 것을 약속했다. 교회문을 나설 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사실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

교회문을 나선 우리는 40일 후 전도대상지가 될 부산대를 ‘정말’ 하기로 했다. 부산대의 이곳 저곳을 사진도 찍고, 마음에 담으려는 발걸음은 분주하기만했다. 부산대를 떠나기 전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40일후에 있을 전도사역을 위해 캠퍼스 벤치에 앉아 기도를 드릴

때였다. 한 3분쯤 통성으로 기도를 했을까? 낯선 음성이 우리의 기도를 가로 막았다. 왜 시끄럽게 공공 장소에서 떠드느냐는 한 학생의 말에 사과를 하고 조용하게 기도를 마무리했다. 서울대 캠퍼스에서도 여러번 기도를 했지만 이렇게 제지를 당한 적은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 하나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부산대의 영적 분위기를 충분히 보여주었다.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함과 교만이 가득한 땅, 겉으로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고 견고한 성읍’이지만 영적으로는 죽어가는 땅이 바로 부산대인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영적분위기를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그 영혼들을 품고 더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40일 후의 놀라운 변화를 기대하는 마음을 주셨다.

부산대의 정문을 나오면서 눈에 띄는 것은 추운 날씨 속에서도 ‘낸발의 청춘’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학생회 선거에 임하는 학생들이었다. 우리에겐 그들의 구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진정으로 왔고 생명이 넘치는 복음이 있다라는 자신감과 그들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야겠다는 각오가 생겼다. 부산이 아무리 복음에 착박한 땅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갈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낙사람을 몰리던 갈렙처럼 우리도 그 땅을 우리에게 붙이시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이제 부산대 전도여행은 3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풍성한 전도여행의 은혜를 함께 나눌 것을 기대하면서 많은 동역자님들의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장애인을 사랑으로

## 서울대 밀알 선교단



▲ 밀알종강장애에 함께한 지체들

“밀알 선교단은 기독교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장애인에게 복음을 전하고(전도), 장애인을 도우며(봉사), 장애인을 사회에 알려(계몽)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가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지난 9월 16일 동아리 연합회의 정식 동아리로 가등록된 밀알 선교단(이하 밀알)이 제출하였던 가등록 원서에 명시된 밀알의 설립목적이다. 이 설립목적과 같이 밀알은 천대받고 소외되었던 계층의 사람들에게 낮은 자세로 다가갔던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의 장애인들과 함께 함을 통해 실천해 가고자 만들어진 선교단이다. 400만의 장애인들의 대다수는 사회적 적응의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밀알은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친구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독교인으로서 그들이 장애를 이겨내는데 작지만 큰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 여름 있었던 정훈기사의 졸업식에서와 같이 아직 우리 사회는 장애인이 일반인과 구분되는 특별한 계층으로 인식되고 있다. 밀알도 장애인에 사회적으로 소외계층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기독교인들이 한 알의 썩어질 밀알이 될 때 장애인도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귀한 생명임을 보여 주고자 한다.

우리 나라에는 약 400만 명의 장애인들이 살고 있다. 우리가 길을 걷다가 마주치게 되는 10명중 한 명은 장애인이다.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되는 사람이 일년에 한 명이나 될 정도로 사회 환경은 많은 장애인이 생겨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더욱 많아지고 있는 장애인들과 함께 하고 그들을 위한 계획을 실천하는 일에 누가 앞장서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행적을 떠올리게 된다.

### 1. 서울대 밀알 선교단의 설립

밀알 선교단의 역사는 1979년에 시작되었다. 서울대에서는 1990년에 오충원(지리89, 서울대 간사)씨 등이 참여하여 밀알이 처음으로 결성 되었으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인강원(정신치체아동시설)활동과 밀알 사랑의 캠프 참가도 이 시기를 전후하여 시작되었다. 그 이후 한동안 침체되었던 서울대 밀알은 1997년에 서울대 밀알 동아리의 체계적이 준비되고 서울대 밀알 선교단 도입과 인강원 활동을 통해 재정비 되게 되었다. 98년도에 밀알 정기모임과 창립예배, 밀알의 밤 행사들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알려지는 기회를 얻었고 9월 16일에 동아리 연합회에 정식 동아리로 가등록 되었다. 현재 서울대 밀알은 서울대 기독교 연합회 준회원으로서 되어 있다.

### 2. 활동과 계획

• 장애인 선교 활동  
밀알 선교단의 기본 목표중의 하나는 기독교 정신에 바

탕을 두고 장애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내부적으로는 밀알의 정기모임(금요일 6시, 16동 105호)을 통해 이에 필요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정기모임에서는 기독교적 장애인에 대한 성경공부와 선교 수화교실을 실시하여 장애인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영적인 힘을 계속적으로 공급받고 봉사과정에서 개개인이 부딪히게 되는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는 강건함을 키우고 있다. 아직은 정기 모임 참석자가 많지 않고 장애인 선교 활동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데에는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소모임 성경공부의 활성화 등을 통해 실제적으로 장애인과 함께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강건하고 체계적으로 양육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외부적으로는 연합활동으로서 전국적인 규모의 장애인 전도집회인 장애인 복음화 대회와 중증 장애인을 위한 '밀알 사랑의 캠프'에 자원봉사자와 진행요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제가 장애인 월요모임'과 예배를 지원하고 있다.

### • 재가(在家) 장애인을 위한 봉사

밀알이 재가 장애인 봉사는 자원 봉사자와 장애인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밀알은 각 대상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봉사활동 영역을 설정하고 봉사자들과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을 연결시켜주고 있다. 실제로 현재 밀알에서는 농아아동 학습활동이나 시각장애인, 지체 장애인을 위한 가사활동 보조 학습 지도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봉사활동을 신청한 십 여명의 학생들과 도움을 요청한 재가 장애인 또는 장애복지시설에 있는 장애인들 간의 연결을 준비 중이다. 앞으로 밀알은 이와 같은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여 실제적으로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인강원(정신치체아동시설) 등 시설 장애인을 위한 정기적 봉사 활동 등은 봉사자 수가 부족하여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때문에 보다 많은 관심 있는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 모색이 필요하다.

### • 계몽활동

예전에 비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사회 환경이 많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장애인들은 사람들의 지속적인 관심 속에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밀알은 장애인에 사회에 알려짐으로써 장애인도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한 구성원임을 확인하고자 한다. '밀알의 밤'을 통해 그리고 '장애체험 행사', '장애인 선교관련 서적 판매' 등의 행사를 대동계 기간중에 마련함으로써 좀더 많은 학생들이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고 장애인 선교를 홍보하고 있다. 특히 2학기 대동계 기간 중에는 '장애체험행사'와 전신마비 장애를 겪고 있는 한 학생의 컴퓨터 마련을 위한 행사를 가졌다. 또한 '밀알보', 세미나자료집, 장애인 관련 서적 등을 제공하는 등 다각적인 장애인 인식개선 활동에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학내의 장애인 학생과 연계활동을 계획하고 있지만 아직 신청자가 없는 상태이다. 학내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재학생이 함께하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연락처: 김은경, 사회복지학과 '96, 018-279-1526)

## 장애인과 교회

또 겨울이 왔다. 이번 겨울은 충성맹인교회에서 맞은 다섯 번째 겨울이다. 처음에 충성교회에 왔을 때의 기억이 선하다. 한번은 청년 성경모임을 인도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맹인 청년들이 몇명 있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복음성가책을 나눠주면서 "230 페이지 펴세요." 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읽을 수 없는 책을 받아들이고 눈만 깜빡이던 회영 자매의 얼굴이 떠오른다.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처음 몇 주 동안에는 내가 큰 실수나 하지 않을까 해서 염려하였었는데, 사람들과 친해지자 지금은 우리 성도들이 장애인이라는 것도 자주 잊게 되었다. 사실은 아주 까맣게 잊고 싶고, 잊고려고 한다.

나는 맹인 교회에 있으면서, 맹인이 된다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아주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새삼 알게되었다. 교장 선생님께서 계시다가 병으로 맹인이 되신 분, ROTC 장교로 임관한 지 얼마 안되어 사고로 맹인이 되신 분, 갑자기 뒤에서 날아온 사냥에 쓰이는 총알에 맞아 맹인이 되신 분 등등.

이제 5년 째 교회에 다니면서 나는 비로소 처음에 몰았어야 할 질문들을 갖게 된다. 맹인 교회가 왜 있는 걸까? 맹인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는 왜 맹인들이 별로 다니지 않는 것일까? 사람들은 '장애인' 하면, '봉사', '사역', '프로그램', '행사' 등등의 단어를 곧잘 떠올린다. 그것은 참 슬픈 일이다. 왜하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 장애인과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장애인들을 초청해서 행사를 갖고 사진을 찍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지는 하지만, 어려운 일은 아니다. 장만자들은 행사를 '개최'하고 맹인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가'한다. 가끔이나 어려운 IMF 시대에 참 감동 어린 장면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만, 굳이 모금함을 들고 돌아다니거나, 바자회를 개최하는 떠돌이행사를 거치지 않아도, 그냥 이웃끼리 할머니에게 김장 김치 서너 포기를 담아서 건네주고 오는 정도로 장애인들과 같이 사는 우리의 습성과 에피소드가 생활 속에 깊숙이 녹아 있고 닳아질 대로 닳아져서 반질반질해지면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내가 장애인에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 너무 낭만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글쎄, 어쨌거나 나는 우리들이 더 낭만적이었으면 하고 은근히 바란다. 나는 장애인들이 전체 국민의 몇 %인지, 복지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잘 모른다. 그렇지만 우리 나라의 복지 실태를 분석하고 좋은 제도를 고안하기 위해 애를 쓰는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장애인을 돕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해 있지 않을 뿐이지 대개는 그런 대단한 일보다는 참 쉽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므로 마구 칭찬해 주시고 칭찬을 받으며 더 낭만적이게 된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다. 어렵게 산으로도 100명 정도가 다니는 교회이면 예닐곱 명은 장애인 성도가 될 듯 싶다. 장애인을 사회에서 '쓸모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장사꾼 세상의 열악한 상상력의 틈바구니에서, 고관도전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더욱 존귀히 여김을 받을 곳은 교회밖에 없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장애인을 예수께 하듯이 대할 줄 알기 때문이다. 교회가 열기왕성해서 일 잘하는 청년들보다,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취급받는 장애인들을 향하여 더욱 문을 활짝 열어젖힐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직 당장은 장애인들과 같이 사는 것에 익숙하지 않고, 그들이 사회의 어느 구석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자주 잊어버리게 되므로 교회가 앞장서서 장애인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그러나 더 나아가 교회의 성도들 각자에게 예수의 부요함이 차고 넘쳐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굳이더러가 되어 준다면 교회는 더욱 예뻐질 것이다. (송경철, 경제석사1년)

## 캠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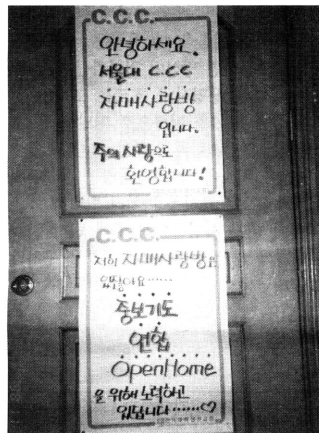
# C.C.C. 자매 사랑방을 소개합니다

CCC 자매 사랑방(이하 자랑방)은 7명의 자매들의 신앙, 생활 공동체입니다.

아침 6시 20분에 기상하여 시편과 찬양으로 아침을 시작한 후 각자 QT를 하고 식사를 한후 학교로 갑니다. 학교에서 8시 기도회(월요일에는 서기연 기도회)에 참석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살아 갑니다.

자랑방의 목표는 중보기도, 연합, Open Home입니다.

매일 저녁 11시에 모여 기도회를 갖고 있는데 월요일은 CCC, 화요일은 형제사랑방과 자매 사랑방을 위해, 수요일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요일에는 방원들의 개인적인 기도를 모으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CCC Retreat(철야기도회)이나 교회 금요 기도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각자의 시간을 가지고 주일은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보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고



### 캠퍼스 동정

제42대 서울대 총학생회 선거가 학생들의 무관심 가운데 연장 투표를 통해서야 가까스로 과반수를 넘기며 끝마쳐졌다. 이번 선거에서는 모두 다섯 선분이 출마했는데 여기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거대한 몸짓'이란 모토로 예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 출마한 기독교인 선분도 있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선거 운동의 결과는 그리 만족할 만한 편이 못되었다. 작년의 경우 새벽이슬 선분에서는 10407표 중에 1397표를 얻어 '애국 청년 선봉대' 선분과 '학생 연대' 선분을 누르고 6개 선분 중 4위를 차지해 상당히 센세이션을 낳는 반향을 불러 일으켰었다. 그러나 올해 개표결과를 보면 새벽이슬 선분은 10610표 중 불과 960표밖에 얻지 못해 4위인 학생 연대 선분의 1920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지지율이 낮아진데 대해 새벽이슬 선분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총학생회에 기독교의 이름을 할 줄 모른다는 것은 그 내부사정이야 어떻든 간에 일반학우들 시각으로 볼 때에는, 기독교 단체 내부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일종의 대표체로 비춰진다. 그러하기에 총학생회 선거에 발을 내딛기 위해서는 내부의 중분

있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회 시간에는 지체들의 중보기도를 하며 지체들의 삶을 함께 아파하고 기뻐하면서 기도의 섬김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연합은 먼저 주님과과의 연합을 말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주님과 한 몸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체들과의 연합을 꾀합니다. 방원들과의 연합을 통하여 지체를 사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캠퍼스의 지체들과 연합하며 함께 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Open Home은 지체들을 위한 장소로 우리의 집을 열어 놓았다는 뜻입니다. CCC 지체들의 소그룹 성경공부나 모임은 물론이고 웃기면 MT나 경제학부 RETREAT, 교회 대학부 모임 등도 이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곳은 우리 방원들만의 집만이 아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두의 집이며 그3 수형성이나 잠깐 들렀다 가는 손님들도 환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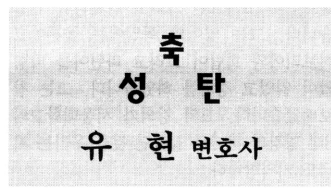
자랑방이 꿈꾸고 있는 가장 큰 꿈은 VISION CENTER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회와 대학생활, 자신의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만을 담아 소주잔을 기울이고 당구장과 각종 오락에 자신을 내맡기는 학생들, 1년에 몇 차례씩 고사를 드리는 이곳 녹두거리... 진리를 찾고자 대학에 왔으나 찾지 못한 기없는 우리 친구들,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마음의 고독과 허무를 그런식으로라도 이겨 보려고 몸부리치는 우리의 선구배들. 이제는 정의도, 진리도, 삶의 의미도 옆으로 밀어둔 채 인일과 생존에만 여념이 없는 사람들. 왜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해 방황하고 괴로워하는 그

들, 안타깝게도 그들 중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술과 허무와 방황의 녹두거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예수님 같은 집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 곳엔 근사한 강당을 만들어 예배도 드리고 친구들을 초청해 진전한 휴식도 취하고 예수 영화도 상영하고 음악 감상 등의 문화 공간을 만드는 등... 어느 누구에게나 합니다. 방원들과의 연합을 통하여 지체를 사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캠퍼스의 지체들과 연합하며 함께 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방원들이 온전한 믿음과 순전한 기도로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가길 소원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식사를 준비하며 청소를 하며 생활 훈련도 받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기 위한 준비 또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갈 주의 청년들로서 각자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며 과거적인 모임, 교회 대학부 등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말씀을 통해 우리의 과를 변화시키고, 캠퍼스를 변화시키고, 이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모습으로 격여지기를 소원합니다.



한 의견교환과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번 선거의 경우 장은총형제나 기독교인 단체 사이에서는 선거등록 직전까지 선거 참여여부에 대해서조차 분명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가 급작스럽게 선거 참여를 결정하는 바람에 선거등록 기독교인이 총학생회 선거에 참여하여 기독교인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써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새벽이슬 선분이 총학생회 선거에 기독교인의 이름을 내걸고 직접 나섰다. 이는 의미만으로 만족하려는 것이 아니라

## 총학생회 선거를 지켜보며

면 이번 선거에 대한 차분한 성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무엇 때문에 총학생회 선거에 참여해야 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총학생회에 기독교의 이름을 할 줄 모른다는 것은 그 내부사정이야 어떻든 간에 일반학우들 시각으로 볼 때에는, 기독교 단체 내부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일종의 대표체로 비춰진다. 그러하기에 총학생회 선거에 발을 내딛기 위해서는 내부의 중분

### 신앙서적 안내

### 과학과 신앙

박성현교수의 23인 씀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과 공과대학에서 섬기고 있는 기독교수들이 쓴 간증적 글 모음들. 신앙과 학문의 문제로 방황하는 이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

값 7,000원

### 제자들

오모 디벨리우스 씀

유은상, 이영록 옮김

허틀러 제3제국시대에 고백교회의 지도적 인물이었던 저자가 어둠과 혼돈의 때에 제자들의 뜻을 재조명한 신앙서.

값 3000원

### 그래도 감사하며

이복영 씀

대학총선교회 이사장인 저자가 역경과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낸 간증서.

값 5,000원

### 도시출판 대학촌

TEL. (02)888-9111

나 정책은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을 두고 이에 대한 고민과 토론을 거쳐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기위해서 새벽이슬 선분에서는 선분을 해제하기보다는 내년의 총학생회 선거를 위해 계속 존속시키면서 지속적인 기도와 고민을 해나 가야 할 것이다. 기독교 내부에서 먼저 공감대를 형성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기획하고 준비함에 있어서 잊지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캠퍼스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데 있다는 것이다. 학우들의 기호에 맞는 그럴듯한 공약들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과연 캠퍼스를 향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 깊이 기도하며 숙고하는 것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이시다. (잠언16장9절)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할 것이다.

윤준희 기자(자연과학부 '97)